

中 “고구려·발해는 中 지방정권” 왜곡

고구려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우리와 갈등을 빚었던 중국이 이번에는 발해사를 중심으로 한 고대사를 송두리째 왜곡한 내용의 논문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특히 기자조선을 내세워 한반도의 역사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술하는 등 우리 역사의 뿌리를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역사를 둘러싼 양국간 외교 갈등 재연이 우려된다.

2002년부터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추진해 온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邊疆史地) 연구센터는 최근 웹사이트에 발해국사 등 동북지방의 역사를 정리한 과제논문 27편 중 18편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본을 올려 놓았다.

독재자 무솔리니 사인 밝혀지나?

손자, 주검 발굴 신청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을 부다페스에서 꺼낼 수 있도록 법원에 승인 신청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레지스탕스의 설명은 1945년 4월 무솔리니가 정부와 함께 연합군을 피해 달아나다 잡힌 후 한 유격대원에 의해 ‘이탈리아 국민의 이름으로’ 처형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무솔리니 손자 귀도 무솔리니의 변호인은 “순전히 거짓말”이라며 조사 결과 처형 집행자로 알려진 윌터 아우디시오는 그 2년 후까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무솔리니를 잡았던 우르바노 라자로는 1995년, 동료 유격대원이 무솔리니를 처형하기 4시간 전에 이미 무솔리니와 정부를 끌라라 폐타치는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과학원 ‘동북공정’ 연구 논문 무더기 공개

정부 “자료 분석후 강력 대응” 양국 갈등 재점화

이번에 내놓은 논문중 발해국사는 발해 건국의 주도세력이 고구려인이 아니라 말갈족이며 대조영(大祚榮) 정권이 발해 초기 말갈을 정식국호로 채택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발해국이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아니라 당나라의 통치범위 안에 든 지방민족정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발해이민의 통치와 귀족연구에서는 발해가 건국 이래 당나라의 속국으로 당 왕조의 책봉을 받는 중국 역

사에서 뛸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히고 발해 멸망 후 그 이민들이 효(效) 와 금(金)으로 옮겨가 중화민족으로 응화됐다고 밝혔다.

다른 논문들도 고구려가 고대 중국의 지방민족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고조선과 부여까지 중국 역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우리 학계에서는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자(箕子)에 대해서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에서는 은(殷)대 갑골문자와 전진(前秦)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 최초의 지방정권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5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으며, 정부는 고구려사 연구재단 등 학술단체의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교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고구려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 중 하나이고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면서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떤 외교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외교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테레사 수녀 서거 9주년 추모

수십명의 수녀들이 인도 캘카타의 마더하우스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 서거 9주년을 기념하는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이날 추모식에는 전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수녀 수백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하늘을 나는 호텔’ A380 첫 비행 성공

12월 싱가포르에 첫 인도



에어버스가 제작한 세계 최대 여객기 A380이 4일 처음으로 승객을 태우고 시험 비행을 실시했다.

A380은 이날 에어버스 본사가 있는 남부 블루즈의 공항을 이륙해 코르시카에서 영국까지 항로를 비행했다. A380은 탑승을 지원한 일직원 1만5천 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474명을 7시간 가량 태우고 기내 TV에서 화장실 시설 까지 모든 것을 테스트했다.

6천500 km 비행을 마친 승객들은 “이루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기내가 조용했고 페퍼했다. 인상적인 비행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날 비행은 8일까지 이어지는 4건의 시험 비행 중 첫번째 순서다. 시험 비행 중 한건은 약간에 시행된다. 4건의 비행에는 1천900 명의 에어버스

임직원이 동원될 예정이다.

한편 에어버스는 이날 A380 프로젝트 책임자를 사를 상파옹에서 마리오 하이년으로 교체했다. 상파옹의 교체는 A380 생산 지역에 따른 문책 성 인사다.

앞서 생산 지역 물의로 에어버스 공동 최고경영자(CEO)인 쿠스타프 훈베르트가 물러났고 에어버스 모회

힐 “북핵, 새로운 협의의 틀 필요”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5일 북한 핵문제 협상을 위해 6자회담과는 별도로 다수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일본을 방문한 힐 차관보는 이날 외무성에서 기자단에게 지난 7월 말

힐 차관보는 “동북아의 다자간 외교는 동남아 지역에 비해 한발 늦다”고 지적하면서 역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으로 출발하는 그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거듭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북한 당국이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帝, 징용선 격침 6건 추가 확인”

진상규명위, 한국인 희생자 日 발표보다 크게 늘 듯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과 1945년 사이에 쿠릴열도 전역에 발생한 징용선 격침사고로 희생된 사건이 당시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가조사가 이뤄지면 쿠릴열도 지역에서 발생한 일본 징용선 격침사고로 인한 한국인 희생자의 수가 일본측이 당시 일본과 미국의 격전지였던 쿠릴열도 북단인 파리무수와 슈무수 섬 부근을 지나가다 미국 잠수함 선피시호가 발사한 어뢰를 맞아 격침됐다. 이 사고로 한국인 징용사 182명 (일본측 집계)이 사망했다.

타이하이마루호는 1944년 7월9일 강원도와 황해도 일대 한국인 징용자를 태우고 당시 일본과 미국의 격전지였던 쿠릴열도 북단인 파리무수와 슈무수 섬 부근을 지나가다 미국 잠수함 선피시호가 발사한 어뢰를 맞아 격침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5일 쿠릴열도 부근에서 미군 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타이피에마루호(太平丸)호에 승선한 한국인 희생자 수를 일본측이 발표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이애나는 재혼할 생각 없었다”

사망 9주기…당시 집사 버렐 회고록 공개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재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집사였던 폴 버렐이 새 저서에서 주장했다고 미 국 ABC방송이 5일 보도했다.

집사 시절의 이런 저런 일을 폭로해 논쟁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버렐은 다이애나 사망 9주기로 지나가 무섭게 “우리가 있었던 길”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온 선데이지가 연재를 시작한 새 저서에서 다이애나

와 도디 알 파드에 죽을 무렵 결혼할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이애나와 파드는 1997년 8월31일 파리에서 자동차 충돌사고로 사망했다. 버렐은 저서에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애나와 도디가 결혼하기로 했었고 믿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호사가들은 문제의 반지를 약혼반지로 해석했으나 버렐은 이런 해석을 일축했다. 왕세자비가 오른손에 긴 그당 ‘우정’의 반지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버렐은 다이애나가 결혼할 짐새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경빌딩 입대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1000m

설계인원	설계인원
1000m	1000m

시공설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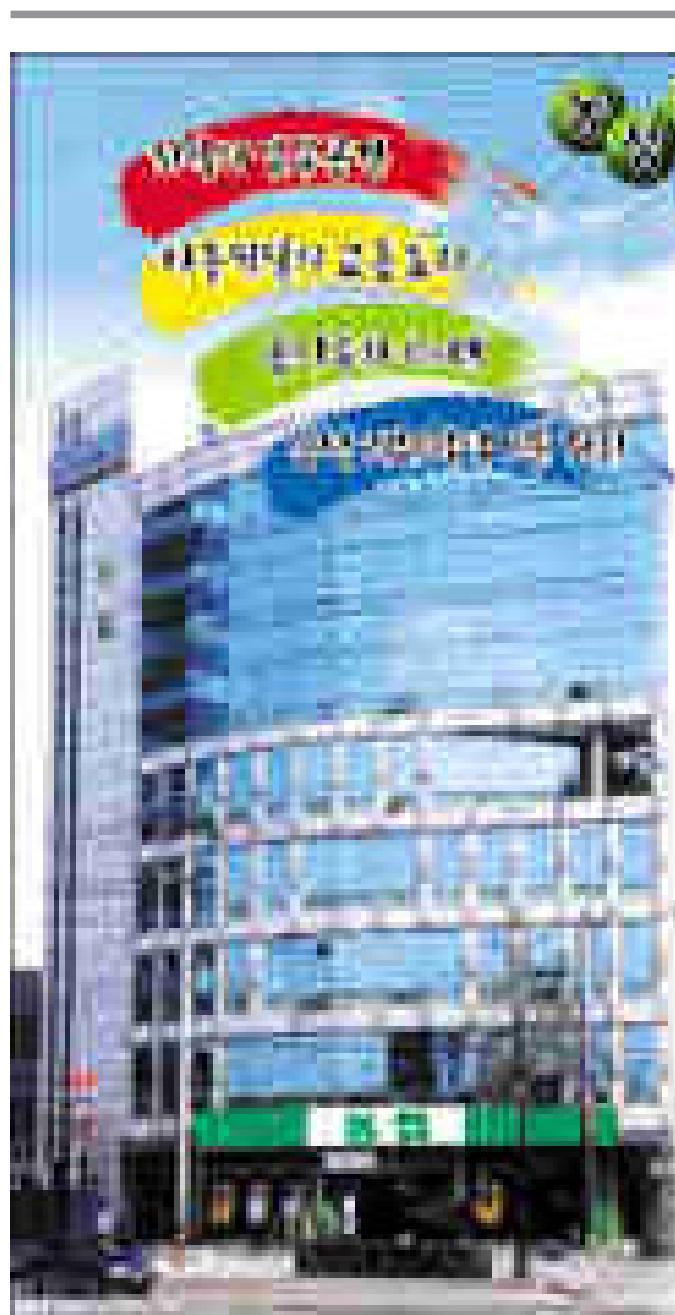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1000m

경영지도자 과정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1000m

스피치 리더십 과정

222-2256,011-511-5010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